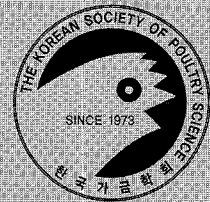


한국 가금산업의 발전시책

이재용 축산경영과장 (농림부 축산국)



한국 가금산업의 발전시책

이재용 축산경영과장 (농림부 축산국)

1. 양계산업 현황

(1) 산업적 위치

'03년 양계산업 생산액은 1조 3천억 원으로써 축산업 생산액 8조 9천억 원 중 15.1 %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02년 6월부터 산지 닭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02년(14,612억 원)보다 8.6% 감소하였다.

표 1. '03년 축종별 생산액 현황

계	한 육우	젓 소	돼 지	닭	기 타
88,696억원	24,633	15,168	26,812	13,362	8,721
(100 %)	(27.8)	(17.1)	(30.2)	(15.1)	(9.8)

※ 축산물 생산액 중 양계의 점유비율은 '70년 53 %, '80년 26 %, '90년 22 % 수준으로 감소추세임

(2) 사육동향

닭 사육수수는 경기침체로 '01년부터 다소 감소 추세였으나 '04년은 닭고기 수입량 감소로 닭 사육수수가 '03년 대비 8.1 % 급증하였다. 전업 농가수 및 전업농 사육수수가 증가하고 호당 사육수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양계 생산분야에서 규모화, 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연도별 닭 사육현황

		'90	'95	'00	'03	'04	'05. 3
전체 사육수수 (백만수)		74	86	103	99	107	110
전체 농가수 (천호)		161	203	218	144	131	122
호당 사육수수 (천수/호)	육 계	8	13	22	28	31	32
	산란계	11	16	20	23	25	25
전업 농가수 (호)	육 계	61 (1.7)	306 (12.0)	630 (31.3)	743 (46.2)	807 (50.2)	886 (54.2)
	산란계	211 (5.4)	357 (12.5)	450 (17.3)	453 (21.3)	496 (24.3)	499 (24.1)
전업농 사육수수(백만수)	육 계	2.4 (8.9)	12.5 (37.8)	30.0 (66.2)	35.2 (78.5)	40.2 (80.1)	42.6 (80.8)
	산란계	18.0 (42.5)	23.5 (50.7)	29.2 (57.2)	29.9 (61.8)	33.8 (65.5)	33.7 (65.5)

※ () 내 수치는 전체 대비 점유율임

(3) 수급 동향

닭고기 소비량은 외식소비 증가와 신세대를 중심으로 닭고기 선호도가 높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량 증가로 자급률은 감소추세이다. '04년 닭고기 소비량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1~2월 소비량이 30~40 % 수준 감소 영향으로 '03년보다 16 % 감소한 319천 톤이며, 주 수입국가인 미국 및 태국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어 '04년 자급률은 크게 상승하였다.

표 3. 닭고기 소비동향

	'97	'98	'99	'00	'01	'02	'03	'04
국내산 (천톤)	261	247	237	260	265	291	287	287
수입산	18	13	46	67	85	94	89	32
계	279	260	283	327	350	385	376	319
자급률 (%)	94	95	84	80	76	76	76	90
1인당 소비량 (kg)	6.1	5.6	6.0	6.9	7.3	8.0	7.9	6.6

※ '97년 7월 수입개방 이후 저가의 닭고기 수입증가로 자급률은 매년 감소함

계란은 '90년대 후반 일시적인 소비정체 기간을 거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04년에 계란소비량은 식란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제과·제빵 등 가공용 수요가 증가하여 '03년보다 1 % 증가한 508천 톤이 되었다.

표 4. 계란 소비동향

	'97	'98	'99	'00	'01	'02	'03	'04
소비량 (천톤)	477	456	461	479	529	537	503	508
1인당 (kg)	10.4	9.8	9.8	10.3	11.1	11.2	10.5	10.6

(4) 수출입 동향

닭고기 수입은 완전개방('97. 7)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주요 수입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미국은 '04. 2. 7, 태국은 '04. 1. 23부터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04년 닭고기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국내 일부 부족 물량은 수입선을 덴마크, 프랑스로 변경하여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단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수입품목은 주로 냉동 닭다리이며, 닭날개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5. 국가별 닭고기 수입현황

	미 국	태 국	중 국	덴마크	프랑스	기 타	계
'02	61,591톤 (65.6%)	30,473 (32.5)	554 (0.6)	411 (0.4)	25 (-)	788 (0.9)	93,842 (100)
'03	43,706 (49.2)	43,945 (49.5)	870 (0.9)	166 (0.2)	1 (-)	149 (0.2)	88,837 (100)
'04	3,999 (12.6)	8,535 (26.8)	779 (2.4)	15,274 (48.0)	2,750 (8.6)	512 (1.6)	31,849 (100)

닭고기 수출은 '03. 12월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홍콩 등 닭고기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일본은 '05. 3. 24일자로 수출이 재개되었다. 종전 삼계탕 위주에서 닭날개·다리 등 부분육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일본과 홍콩으로 주로 닭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냉장육의 수출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표 6. 국가별 닭고기 수출현황

	일 본	홍 공	중 국	태 국	기 타	계
'02	865톤 (46.7%)	651 (35.1)	273 (14.7)	25 (1.3)	39 (2.2)	1,853 (100)
'03	945 (49.2)	708 (36.9)	177 (9.2)	- (-)	91 (4.7)	1,921 (100)
'04	409 (55.6)	200 (27.2)	- (-)	36 (4.9)	90 (12.3)	73 (100)

계란 수출입 실적은 거의 없으나 난황·난백 상태로 제과·제빵용 등으로 매년 2천 톤 수준에서 수입되고 있다. 신선 계란은 '99년초 국내 계란가격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일시 수입된 바 있다.

(5) 가격 동향

양계산물은 계절간 소비편차가 크고 생산주기가 짧으며 사육농가의 입·퇴출이 용이하여 가격동락 주기가 짧아 가격이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

- 닭고기는 겨울철에 생산성이 저하되는 반면 설 특수 소비로 겨울철(1~3월)의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고 여름철(7~8월)은 최성수기이나 공급물량 증가로 강보합세를 보이며, 봄(4~6월)·가을(9~11월)은 비성수기로 약세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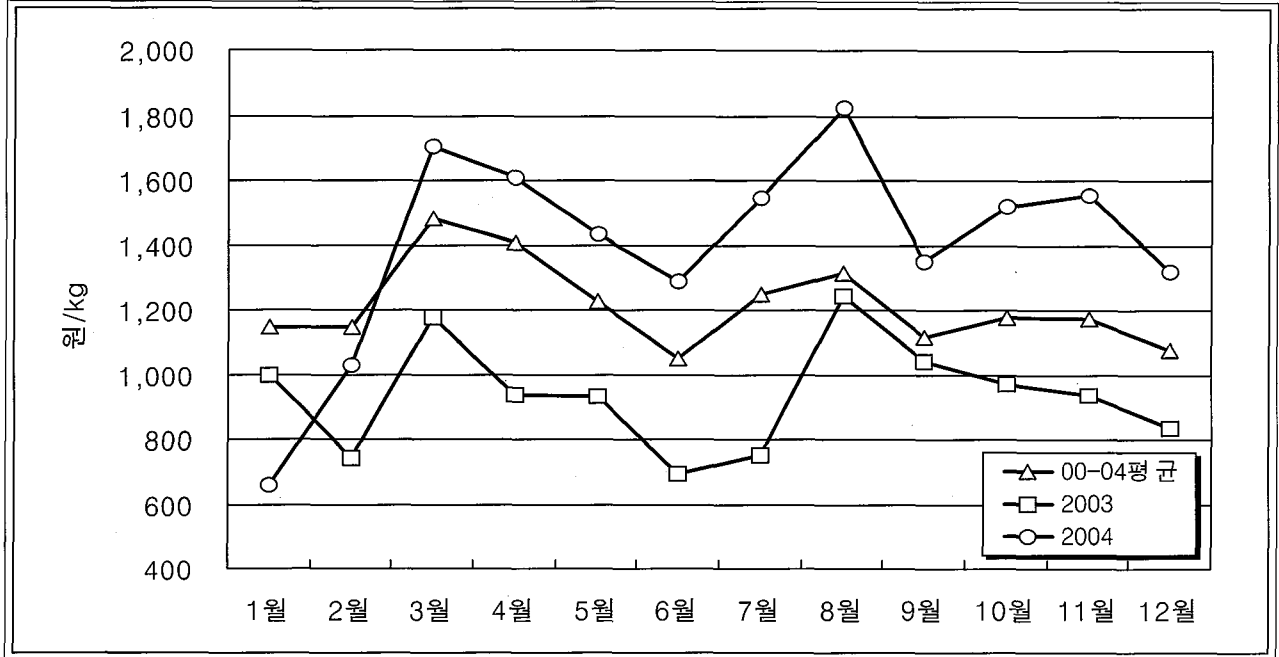
※ 성·비수기 육계가격('91~'02) : 겨울철 → 1,248원/kg, 봄·가을 → 1,074원/kg(가격차 16 %)

- 계란은 봄(3~5월), 가을(9~10월)이 성수기이고 여름(6~8월)이 비수기이다.

※ 성·비수기 계란가격('91~'02) : 봄·가을 → 685원/10개, 여름 → 583(가격차 17 %)

- 최근 육계가격은 '02년 하반기 이후 장기간 약세가 지속되다가 '03. 12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크게 하락 후 '04. 2월부터 생산비('03년 1,003원/kg)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05. 3월 1,883원까지 상승하였다.

표 7. 육계 산지가격 동향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00~'04 평균	1,148	1,149	1,481	1,405	1,226	1,049	1,249	1,314	1,115	1,178	1,172	1,076	1,216
2003	999	742	1,177	938	930	693	753	1,246	1,042	973	938	833	938
2004	659	1,029	1,704	1,608	1,432	1,286	1,548	1,825	1,350	1,520	1,557	1,318	1,403
2005	1,572	1,816	1,883	1,751(4월 중순 현재)									

2. 그동안 추진시책

(1) 추진성과

'94부터 '00년까지 양계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513억 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양계시설의 자동화·규모화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144천 호의 양계농가중 3만수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 1.4천 호(1.2%)가 전체 사육수수의 72%를 사육하여 전업농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양계단지·계열화사업에도 1,608억 원을 지원하여 양계단지가 '93년 11개소에서 '04년 37개소로 증가하고 양계 계열화업체는 '93년 7개소에서 '05년 10개소로 확대되어 양계업을 규모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노력하였다.

계사 표준설계도 20종을 개발 보급하여 표준설계도에 의한 계사 건축시 면적에 구애 없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해당 시장·군수에 신고로 가능토록 하였다.

자연재해 등 가축피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코자 '02년부터 가축공제대상 품목에 포함하여 축발기금으로 농가공제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00. 7월부터 '03. 7월까지 연차적으로 닭 도축장에 대해 HACCP을 의무 적용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였다.

닭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02년 54원/kg에서 '04년 84원/kg으로 증가하였다.

농협중앙회에 각 생산자, 소비자, 교수 등 각계각층의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가금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간자율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위원회에 '01년 500억 원 및 '04년 750억 원(무이자 융자, 3년 거치 일시상환)을 Seed Money로 적립하여 운용수익금(이자)으로 민간자율 수급조절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동안 가금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란·종계 노계 도태 등 생산조절부터 대중매체광고, 시식회, 이벤트 등 가금산물 소비홍보, 수출촉진, 조사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양계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도 등급제 실시, 유통시설 개선 및 판매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01. 12월에 계란, '03. 4월에 닭고기에 대한 시범등급사업을 실시하여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로 고품질 계란·닭고기 생산에 대한 농가의 의욕을 고취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란유통시설 개선을 위한 계란 집하장 설치지원 및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닭고기 부분육·냉장육 유통체계 활성화로 수출확대를 위해 '02년부터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닭고기 브랜드육의 판매망 구축 등 국내산 닭고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02년부터 닭고기 체인점을 지원하고 있다.

(2) 미흡한 점

- **생산측면** : 종계의 생산성이 낮아 병아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어 외국과의 경쟁력이 낮다. 종계는 특별한 시설과 관리기술이 필요하나 종계업 허가제 및 부화업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영세 종계업자(223개소)가 난립하여 마이코플라즈마, 추백리 등 종계를 통한 닭질병 전파의 원인을 제공함에 따라 '04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육계의 경우 보온덮개형 간이계사(무허가)에서 사육됨에 따라 환기불량, 질병소홀 등 생산성이 낮고 호당 사육규모도 28천 수로 선진국 50~60천 수에 비해 영세하여 생산기반이 비교적 취약하며, 농가의 입·퇴출이 용이하여 과잉·과소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가격등락이 크게 나타났다. 육계는 1.5 kg에서 조기 출하함에 따라 외국에 비하여 사료효율(미국 1.7/kg, 한국 1.9/kg)이 낮으며 규격이 달라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표 8. 종계 생산성 비교

	종란 생산 (개/년)	병아리 생산수수	부화율 (%)
미 국 (A)	165	135	82
한 국 (B)	135	105	78
B/A	82	78	95

표 9. 외국과의 육계 출하체중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중 국	태 국
출하체중 (kg)	1.5	2.1	2.7	2.5	1.8
사육일수	38	46	57	53	44

- **유통 및 소비측면** : 양계산물은 공판장이 없어 공정한 가격결정이 되지 않고 상인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후 장기(외상판매하고 대금 지급시 가격으로 정산) 가격형성 등으로 생산능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계란의 경우 각 지역별로 생산자단체가 예시가격을 정하고 있으나 결정력이 없고 상인 주도하에 결정되고 있다.

도계능력 30천수/일 미만이 전체 도계장의 43 %로서 규모가 영세하고 업체가 난립하여 가동률이 55%로 낮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계란집하장 유통체계가 정착되지 않고 가동률이 낮으며, 계란의 단순 수집·선별 기능에 치중하고 있어 등급·포장판매 기능이 미약하고, 직거래 수요처 개발이 미흡하여 수집된 계란을 유통 상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현상이 있다.

닭고기 냉장육 및 포장 유통체계가 미확립되어 계열주체 생산·유통 물량은 60~70 %이며, 나머지는 상인중심으로 대개 상온에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다.

- **방역·위생측면** : 닭 사육이 규모화·단지화되면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방역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질병 발생시 피해가 큼. 또한 뉴캐슬병, 추백리 등 후진국형 소모성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됨. 육계의 경우 조기 출하함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 질병전파에 노출되어 있다.

3. 향후 추진방향

(1) 사전 예방적인 수급안정체계 구축

가금산물은 생산주기가 짧고 계절적인 소비 차이로 인하여 가격진폭이 다른 축종에 비해 심하여 수급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가금산업은 산지가격이 좋을 때 무리한 병아리 입식으로 폭락을 거듭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업체간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가금의 종축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종축의 수입 숫자를 관리하면 수급안정이 가능하여 '03년부터 생산자단체 자율적으로 종계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 10. 종계 수입현황 (단위 : 천수)

		'99	'00	'01	'02	'03	'04	계
산란계	종 계	-	250	302	239	137	162	1,090
	원종계	7	7	8	10	9	9	50
육 계	종 계	201	-	23	441	16	22	703
	원종계	172	120	294	278	199	199	1,262
계	종 계	201	250	325	680	153	184	1,793
	원종계	179	127	302	288	208	208	1,312

육계는 '03. 11월에 원종계(D라인 기준 쿼터를 94천수로 정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쿼터제 시행으로 인하여 '04년과 '05년 현재까지 산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미국, 태국 등 닭고기 주 수입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고기 수입이 예년에 비하여 적게 수입되는 점도 있으나 종계 생산량을 조정함에 따라 병아리 가격이 고가에서 형성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병아리 품질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종계의 사용주령을 64주로 하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75주 이상은 사육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75주 이상 사육한 종계농가에 대하여는 종계병아리를 분양할 때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종계의 수급조절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종계(PS)가 제 시기에 도태되어야 한다.

산란계의 종계(PS)쿼터기준 물량은 418천 수로 운영하고 있으나, 질병 등 문제로 종계 생산성이 떨어져 쿼터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리의 경우도 쿼터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오리협회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 조만간에 업계간에 자율적인 쿼터제 실시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오리는 축산법상 검정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그동안 종오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잡종(F₁) 에서도 생산전 알을 부화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어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축산법령을 개정하여 종오리를 검정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는 잡종에서 생산된 알은 부화대상 알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2) 양계산물의 등급제 확대 실시

국내 양계산업은 수입량 확대 및 국내 유통의 다양화 등 급격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된 닭고기·계란에 대해 품질을 평가하는 등급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양계산물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닭고기는 '01. 6월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등급판정 대상에 포함하고 등급판정은 '03. 4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계란은 '01. 12월부터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시작하다가 '02. 12월에 축산법을 개정하여 등급판정 대상에 포함하고 '04. 4월부터 법적 근거를 두고 등급판정을 시행하였다.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은 '03. 4월부터 실시되었으며 '03년에는 3개 업체, '04년에는 4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다. 닭고기의 등급판정 물량은 '03년에 228천 수, '04년에는 1,927천 수로 총 도계물량 대비 각각 0.1 %, 0.4 %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닭고기 등급판정에 대한 활용도 조사를 보면 학교급식용(64 %), 시장에서 소매용(29 %) 순으로 나타났으며 프랜차이즈용 및 도매용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낮았다.

닭고기의 유통형태도 통닭에서 부분육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05. 2월부터는 통닭에서 부분육까지 등급판정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계란등급판정은 '01. 12월부터 1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05. 4월 현재 8개소 계란집하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계란등급 판정물량은 '03년에 80백만 개, '04년에 104백만 개로 총 소비량 대비 각각 0.9 %, 1.1 %에 불과하지만 등급판정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닭고기·계란에 대한 등급판정 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에 따른 작업시간 지연문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산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등급판정 적용방법을 마련할 것이며, 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등급판정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3) 가금분야 의무 자조금제도 조기 정착

WTO협정 이행과 DDA협상 전개 등 개방화 진전으로 정부에서 가금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여하는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수급 및 가격안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그 근간이 바로 자조금제도가 될 것이다.

임의자조금제는 '90.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실시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축산업 중에서 양계업이 처음으로 '92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임의 자조금 제도는 자조금 참여율이 저조하여 무임승차가 많아 표11과 같이 자조금 조성액이 적어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규모화·전업화됨에 따라 농가의 자율적인 축산물 소비홍보 및 수급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02. 5월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무자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의무자조금제도는 '04. 4월에 돼지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한우가 '05에 도입한 반면 가장 먼저 임의자조금제도를 도입한 양계는 현재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준비중에 있다.

표 11. 연도별 자조금 집행실적(단위 : 백만원)

	'92~'99	'00	'01	'02	'03	'04	계
양 계	1,171	58	80	94	400	442	2,245
낙 농	2,474	2,286	2,855	4,000	2,373	2,378	16,366
양 돈	1,078	310	855	352	282	5,681	8,558
계	4,723	2,654	3,790	4,446	3,055	8,501	27,169

※ 자조금 조성액과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임 / ※ 임의자조금 시작년도 : 돼지 '92.6, 낙농 '98.8, 한우는 미실시

육계는 '04. 12월 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05년 상반기 중에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각 시도를 통하여 축산업자의 수 및 가축사육두수를 '05. 4월말까지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금년 말까지 육계 의무자조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란계 의무자조금은 현행법상 도계장에서 거출하게 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있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준비중에 있다. 산란계(산란종계 포함)의 의무자조금 거출방법은 사료회사를 통하여 거출하는 방법과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분양할 때 거출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다. 병아리에서 거출할 경우 폐사 또는 강제환우 등으로 계란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조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사료에 거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산란계 의무자조금제도는 동법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의무자조금제로 추진 이전에는 자조금이 거출되면 임의 자조금제도 형태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리는 현재까지 자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았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임의자조금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조성방법은 계열화업체와 오리부화장에서 수당 각각 5원씩 거출할 예정이다. 오리의 의무자조금제도는 '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4) 가금질병 방역 강화

축산물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가축 사육수수이지만 최근에는 가금질병의 발생여부에 따라 수입에까지 차질을 주고 있어 질병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금티푸스는 산란계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오염된 육용종계로부터 난계대 전염으로 육계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추백리를 자가검사(종계장)함에 따라 발생보고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종계장에 비해 방역상황이 취약한 일반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알을 부화하여 삼계탕용 병아리(백세미)로 공급하고, 일반 재래닭 농장은 생산된 알을 부화함으로써 질병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여 방역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다. 종계장·부화장의 위생관리와 닭 질병방역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제정('04년)하여 추백리·가금티푸스 양성 계군에 대하여는 도태장려금을 지급하고, 양성 종계군의 동거 종계에 대한 도태 또는 종계사용 금지조치 등 미이행 종계장, 감염종계 유래 병아리 분양 종계장 또는 소독 등 방역관리 부실 부화장은 축산전문지에 공표할 계획이다.

뉴캐슬병 의무예방접종과 가금티푸스의 예방접종 금지이행 여부, 소독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위반농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닭 질병 방역 홍보·교육을 통하여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건강한 종란 및 초생추입식으로 질병 청정농장을 지향하고, 소독시설 설치, 소독장비 구비 및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가금질병의 조기 청정화를 위하여 백세미를 생산하는 산란계와 부화용 알을 생산하는 토종닭(재래닭)에 대하여도 종계에 준하는 방역관리의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다.

(5) 가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닭고기 및 오리고기는 '97. 7월 수입개방 이후 수출량이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03. 12월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04. 11월부터 수출이 재개되었다.

우리나라 가금육의 수출국가는 대부분 일본과 홍콩이며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은 교포가 선호하는 삼계탕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홍콩의 주요 수출품목의 약 90% 이상이 닭 날개품목이

며 도태되는 산란노계 또는 종계노계를 이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 주변국가인 중국·태국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더욱 호전되었고 특히 오리의 경우는 최대생산국인 중국의 수출이 중단되어 국내 오리 수출확대에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가금류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인 수출목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05년 수출목표액은 5백만 불로 정하고 2013년 목표는 금년보다 약 2.5배 증가한 12백만불로 정했다.

국내 가금산업은 가금류 수출국가에 비하여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냉장육 위주의 수출확대가 불가피하다. 국내적으로 수출되는 가금류는 대부분 냉동육이다. 소비자의 고품질 선호에 따라 냉장육 수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산 가금류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앞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이며, 중국산보다 한국산 가금류의 안전성·위생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다.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체 물류비의 30 %를 지원하던 것을 '04년부터는 50 %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내 닭 출하체중은 닭 수출국가에 비하여 작아 수출용 규격 닭 생산능가를 육성하기 위해 환기·급수 등 시설을 보완하는데 지원을 강화하고 사양기술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일 가금류 수출확대를 위하여 '03년부터 일본내 대형 유통체인점에서 한국산 가금류 판매장을 개설하여 한국산 가금류를 직접 판매 홍보하였으며,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산 닭고기의 맛과 품질에 대한 조사결과 일본산 닭고기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일본내 대형 매장에 한국산 가금류 판매를 확대하고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문·잡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선호하지 않는 가슴살과 교포가 좋아하는 삼계탕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의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을 조속히 준비·마련하여 조만간 대미수출 길을 열 계획이다. 또한, 수출을 위한 설비투자의 확대 및 개선을 위해 수출 도계장에 부분육을 발골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6) 종계 및 병아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종계 사육수수와 입추실적 등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그 동안 추정에 의하여 닭을 입식함에 따라 가격 진폭이 심하여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종계의 쿼터제 실시에 따라 과거와 같이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단기간의 생산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종계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비 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닭의 과잉 입식에 따른 양계농가와 계열업체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국내 여건상 더욱 중요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베이스(D/B) 사업이다.

종계 Date-Base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우선 파악하기 위하여 '04. 10월~11월 3주 동안 전국의 종계장을 시·군과 생산자단체(농협, 양계협회, 계육협회) 합동으로 일제 현지조사를 하였다. 전국 종계장과 각 종계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각 계사별로 고유번호가 등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디지털카메라로 농장전경, 농장출입구, 각 계사별 전경을 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종계장별 일반자료와 각 계사별 사육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본 자료를 확보하였다.

육용원종계 업체(삼화원종, 한국원종, 하림)는 종계(PS)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종계업을 등록

한 농가에 한하여 분양하고 그 결과를 매주 데이터베이스를 총괄하는 양계협회에 통보한다. 양계협회는 자료를 입력하고 종계를 분양받은 종계농가에 대하여 종계사에 실제 입식여부를 확인하여 무등록 종계농가에 유출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만약 유출한 농가가 확인되면 그 농가에 대하여는 다음 종계를 분양할 때 원종계 업체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무허가 종계농가는 종계를 받지 못할 것이며, 혹시 무허가로 종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종계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협회에서는 당초 입식한 계사에 종계가 사육되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종계장에 유출여부, 재해 및 질병에 의한 폐사 수, 사용기한이 초과한 종계의 도계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료를 입력하여 매주 모든 농가에게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종계 Date-Bas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종계농가별 보안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Date-Base 실시 때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종계 D/B화 사업만으로는 정확한 닭고기 수급추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부화장에서의 부화실적과 접목이 되어야 완벽한 D/B화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종계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부화를 인정하고 있는 일명 백세미 알(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과 토종닭의 병아리 분양실적을 종계 D/B화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육용원종계의 쿼터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백세미 및 토종닭 농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적정 백세미 및 토종닭이 사육되도록 생산조절장치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종계 D/B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무엇보다도 농가, 계열화업체, 부화장, 도계장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모두가 정확한 자료제공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런 협조에서 만들어진 D/B화 자료는 양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